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 (1): 하나님의 절대주권

IN 신학정론

vol.15 no.1 (May,1997): 9-45

여섯째, 우리는 통일 조국의 시민상에 걸맞은 검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모 인사가 북한 청년들에게 지금 한국에서는 먹고 남는 음식 찌꺼기로 연간 7조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이나고 반문하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나쁜 사람들과의 통일은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낭비적이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처하는 것을 검소하고 절제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일곱째, 우리는 역사의 진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에스겔 37장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들로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준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역사는 정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의 불신앙과 자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1)

- 하나님의 절대 주권 -

신 복 윤
(조직신학,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
| II.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 VI.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
| III.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 VII.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중요성 |
| IV.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 VIII. 맺는 말 |

I. 서론

개혁주의(혹은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한국 장로 교회는 초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개혁주의 사상을 전수 받아 처음부터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진리 해석에 미흡한 사상들이 들어와 한국 교회의 사상적 순수성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경건주의, 세대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사상들이다. 한편 1945년 해방을 전후해서는 이질적이며 극단적인 자유주의 물결이 계속 밀려와서 한국 교회는 더욱 어지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한국 장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경건주의, 세대주의, 신비주의 등의 껍질을 벗기고 개혁주의 신학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일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경의 권위, 구원의 전적 은혜성, 교회의 의회 정치, 성례,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 등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을 연재하여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칼빈주의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19세기초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레슬리(Mason Pressly)가 지적한 대로,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에,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에, 루터교는 이신 칭의에, 로마교는 교회의 보편성에 각각 치중하지만, 칼빈주의자는 항상 하나님 사상에 치중한다. 칼빈주의자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사상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Calvinism and Science, Ev. Repertoire. 1891, p.662. 헨리 미터, 신복운역, 칼빈주의 근본원리, p.26에서 인용) 칼빈주의의 주도적 사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권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이란 성경의 진리를 생활 원리로 삼고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일치하나, 그것을 일정한 술어로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의견의 통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 자존성(永遠自存性)”이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적합하지 못한 것은, 칼빈주의 사상의 기본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원 자존성”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지 못하는 술어이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술어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를 예정론(豫定論)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루터교의 근본 원리가 이신 칭의(以信稱義)의 교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주의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이기는 하나 근본 원리는 아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칼빈만이 아니라 루터, 멜랑톤, 그리고 부처도 예정론을 고백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칼빈과 루터는 예정론을 해설할 때 어거스틴을 따랐다. 그러나 칼빈은 때때로 예정론을 논하였지만 다만 문제의 성격이 그러한 논의를 요구할 때에만 그리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예정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도르트 대회(1618~1619)는 예정론의 탁월성을 인정하였으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교리의 옹호자들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도 이 특수한 교리가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가 된 적은 없었다.

예정론은 인간에 관계된 것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칼빈주의자의 근본 문제는 인간에게 무엇이 생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주권, 그리고 그 위대함에 대한 것이다. 또한 예정론은 도덕적 존재들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만을 국한하여 말하고,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 사상을 앞세운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없다.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은 구원론 부분에서 취급되었는데, 거기서도 그것은 전제 조건이 아

니라 결론으로 언급되었다. 두메르그(Doumergue)의 주장대로,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체계의 기초라기보다는 그 요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칼빈주의 집단에서 볼 수 있었던 공통된 의견이었다. 즉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사람은 가장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다.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일 가는 목적으로 여겼다. 칼빈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으며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에게 제공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이라는 말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Ad Majorem Dei Gloriam)이라는 유명한 두 격언이 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인간은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 말도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를 규정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활동을 너무 크게 제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는 생의 목적에만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기원과 만물의 섭리적 통치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 말은 칼빈주의자들만이 사용하는 술어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루터파에서도 이 말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이라는 말은 16세기에 이미 사용되었으며, 후에는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파(Jesuits)의 구호가 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자연계와 도덕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신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절대 주권, 그것은 하나님의 독점적 권한이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셨으며,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입법자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역과 진리, 과학, 예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며, 그리고 사랑과 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자존하신 지배자이시다. 이러한 생각은 칼빈주의자들과 그 밖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이다. 대표적인 주장자들은 두메르그(E. Doumergue),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워필드(B.B. Warfield), 화비우스(D.P.D. Fabius), 솔텐(J.H. Scholten), 그리고 헌터(A.M. Hunter) 등이다.

칼빈주의자는 만사를 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쓴다. 생의 단 한 국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전존재(全存在),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이다.

Ⅱ.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A. 주권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의, 또는 어떤 다른 속성과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속성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속성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바빙크와 카이퍼, 하지와 웨드 등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하지(Charles Hodge)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생기는 특권이다”라고 하였다.(Systematic Theology, I, p.440) 바빙크(H. Bavinck)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칼빈주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속성,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의, 거룩하심, 또는 공평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며, 이것이 곧 칼빈주의자의 사상과 행동의 출발점이다.(The Future of Calvinism,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No.17, Jan.1894, pp.3-4)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 속성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때로는 의로, 때로는 자비나 사랑이나 진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에는 자비를 베풀기를 그만두신다거나, 진노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며,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칼빈주의자의 사상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주권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설명된다.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로 세계와 이성적 피조물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신다. 그리고 주권적 권능(혹은 전능)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의지하신 것을 집행하신다.

B.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다.

①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신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4:11). ②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21:1).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단4:35). ③그리스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온 것이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행2:23). ④죄인을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온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5, 16).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1:11). ⑤죄인의 중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1:18). ⑥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벧2:13). ⑦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온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벧전3:17). ⑧인간의 생활과 운명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온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베소를 떠나”(행18:21). “너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롬15:32).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4:15). ⑨그리고 가장 작은 일까지도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의지에 두고 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C.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전능)

하나님의 주권은 역시 그의 의지를 행사하는 권능, 혹은 전능에서도 표현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지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하시고자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가 실제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렘32: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슥8:6).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

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3:9).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26:53).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그것을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죄를 범하시지 못하신다. 변절하시거나 자신을 부정하지도 못하신다. 이 사실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23:1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삼상15:19).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안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2:13).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6:18).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1:17). 이와 같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순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변절 또는 멸절하실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Ⅲ.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장차 발생하게 될 모든 것을 다 영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그리고 자연적, 정신적 피조물 전체에 대하여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신의 미리 정하신 계획(작정)에 따라 행사하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엡1:11)라고 한 바울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에서 매일같이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A. 하나님의 작정의 본질

성경은 모든 것들, 특별한 일들, 그리고 구속 사역 등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 작정에 의하여 계획되고 진행된다고 가르친다.

첫째로, 성경은 모든 것,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① 하나님은 “온 세계”, “땅의 모든 거민”, “모든 일”들을 자신의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처리하신다. 그 계획과 뜻에 따라 펴신 손을 돌이키거나 금할 자가 없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14:26,27). ② 심지어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관계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었으나”(행 2:23).

둘째로, 성경은 특별한 일들과 사건들이 작정되었다고 가르친다.

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단일 근원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든 국가들의 흥망과 연대와 국경을 정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17:26). ②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길이를 정하셨다. “그 날들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음으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욥 14:5). ③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의 양식도 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요21:19). ④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선하고 악한 행동들을 작정하기도 하신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0:20). 역시 사44:28;엡2:10;왕상 12:15,24;눅22:22;행 2:23;4:27,28;롬9:17;벧전 2:8;계 17:17. 참조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작정하셨다고 가르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전 2:7).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립될 것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는 역사적 왕권의 임명을 영원 전에 받으신 것이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잠8:23).

B.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들

하나님의 이 작정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하나님

의 무한한 지혜는 반드시 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우주에 대해 계획을 세우실 때 세밀한 항목까지도 세웠을 것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명확한 계획 없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계획)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엡1:11)을 따라 세워진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지혜로 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다”(시104:24). 잠언에서도 이와 동일한 관념이 표현되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세우시고”(잠3:19).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이 전적으로 영원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영원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의 시작 이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정의 형성이 하나님의 존재의 행동이며, 그 행동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영원적이라고 한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3:11)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적이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똑같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정된 사건들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은 그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확실히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시33:1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19:21).

넷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인간은 자주 자신의 지

식과 능력과 진실성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다. 사람은 두 번 생각할 때에는 그가 세웠던 계획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혹은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잘못, 그러한 결핍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참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욥23:13,14).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시46:10).

다섯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작정은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피조물의 자유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그들의 예지(선견)된 불순종이나 예지된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장차 발생할 것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실현되는 조건인 신앙도 결정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행2:2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여섯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全包括的)이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선한 것이든 구속에 관한 것이든 모두가 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엡1:1)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안정을 작정하셨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음으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시119:89-91). ②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일을 작정하신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2:10). ③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작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니”(행2:23). “과연 해룻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행4:27, 28). ④ 하나님은 우발적인 사건들을 작정하신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45:8).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5:20). ⑤ 하나님은 목적과 수단을 함께 작정하신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⑥ 하나님은 생명의 기한을 작정하신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음으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욥14:5).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시39:4). ⑦ 하나님은 인간의 거처를 작정하신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17:26).

일곱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대하여는 허용적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아시고 그 결과인 범죄를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은 다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기로 하는 결정이었다. 하나님은 이 작정에서 죄의 행동이 있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나, 친히 인간 의지에 역사하시어 죄를 범하도록 결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역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장차 죄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작정이지만, 그러나 이 작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결정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악한 결정의 결과를 제재하시며 관리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것뿐이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시78:29).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시106:15).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니”(행14:16).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17:30).

IV.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 1:1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태초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었고,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이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4:11). 우리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그 원인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바울도 로마서 11:36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을 섭리(“주로 말미암고”)하시며, 만물을 심판(“주에게로 돌아감이라”)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1:1 배후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영원 속에서 아직 우주는 태어나지 않았으며, 창조는 창조주의 마음속에만 존재하였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피조물도 없었으며, 배반자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광대한 우주의 장엄한 정적 한 가운데 홀로 계셨다. 그러나 그 때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혹은 저런 방법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다. 그는 세계를 하나만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백만 개의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의지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면 가장 강력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유기체(생물)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천사를 창조하시는 것도, 태어나자 즉시 죽어버리는 하찮은 곤충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이었다.

창세기 첫 두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먼저 “태초”라는 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초”라는 말은 모든 일시적인 사물의 시작과 심지어는 시간 그 자체의 시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는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된 것이다. 태초의 배후에는 시작이 없는 영원이 있었을 뿐이다. 성경은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주님의 기도와 시편에서 가르치고 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17:24). 여기 “창세 전에”와 “창세 전부터”라는 말씀에서 우주 만물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저자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시90:2)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둘째로,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무로부터, 부분적으로는 불충분한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출하여 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다. 셋째로,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창조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물질은 다같이 영원적이라 보고(二元論),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단순히 우주의 구성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영원자(혹은 무한자)가 병존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물질은 구성과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세계를 본질적으로 하나로 보고(유출설),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한과 불완전의 특징인 변화와 성장과 발전의 원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결정의 능력을 박탈하고, 하나님께 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이 이론은 범신론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이 마치 창조의 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는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발전은 발전을 위한 무언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물질 영원설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창조의 교리를 승인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진화론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자연주의적 진화론이요, 다른 하나는 유신적 진화론(혹은 창조적 진화론)이다. 자연주의적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감각, 지성, 도덕, 종교와 같은 생의 현상들은 물질과 생명의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완전한 자연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세력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물이 어떻게 유기물로 변하느냐, 짐승이 어떻게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로 변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은 종(種)과 인간의 기원, 인간의 원시상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창조 이야기와 전적으로 모순된다.

그리고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유신적 진화론은 하나님을 발전의 전과정 배후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사역자로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물 무에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 즉 자연적 발전 과정을 통하여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생명이나 인간의 기원과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적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상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못지 않

게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항상 만물이 하나님의 “똥”, “말씀” 그리고 “입기운”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미 있던 기존 물질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시편에서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시33:6).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시148:5).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요 소유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니라”(고전8: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4:11).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6).

V.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역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신다. 만물은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1:3), 성자 하나님은 역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불드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1:3). 아버지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귀하게 돌보며 기뻐진대,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친히 창조하신 만물들을 소중히 돌보시며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창조의 전질서는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존재의 매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 시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저희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흠으로 돌아가나이다”(시104:24,27-29)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섭리는 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는 데서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시103:19). ② 물질의 세계를 관리하시는 데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욥37:5,10).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시104:14).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시135:6,7).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5:45). ③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

를 돌보시는 데서 볼 수 있다. “젊은 사자가 그 잡는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시104:21,22);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안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마6:26).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④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시는 데서도 나타난다. “만국을 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욥12:23).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시22:28).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시66: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17:26). 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타난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75:6,7).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눅1:52). ⑥ 하나님은 무의미하고 뜻밖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간섭하신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16:33).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마10:30). ⑦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 “내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시4:8).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시5:12).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불드시거니와”(시63:8).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121: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⑧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스리신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시76:10).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시119:36).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3,9). 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요를 공급하신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22:8,14).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⑩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65:2).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⑪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을 적발하고 벌하시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시7:12).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11:6).

Ⅶ.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뽑으시는 선택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통하여 죄인

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요, 삼위중 어느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다. 이하에서 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 구원과 성부 하나님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은 아마 로마서 9장일 것이다. 여기서 이 9장 전체를 다룰 필요는 없고, 21-23절의 말씀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생명이 없는 한 덩어리의 진흙처럼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 성경은 피택자(被擇者)와 비피택자(非被擇者)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증거한다. 그들은 다같이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에베소 2:3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은 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말씀은 모든 개인의 궁극적 운명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배정하신 목적이 각각 다르다고 선언하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피조물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마치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면전에 온 인류가 서 있었으며, 여기서 하

나눔은 자기 백성을 뽑으시고, 그들을 양자로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우리는 다음 일곱 개의 성경 구절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된다.

(1)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13:48).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된다. 첫째로 신앙은, 하나님의 작정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정을 받았다고 하면, “작정된 자는 다”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作定)”은 단순한 외부적인 특권이 아니라 영생의 작정이며,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구원 자체의 작정이라는 사실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가 다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이다.

(2)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롬11:5,6).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절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 천을 남겨 두었다”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남겨 두었다”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칠 천 명을 남겨 두셨다. 이 남겨 두심과 깨우치심은 그들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 두심으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 말씀은 은혜와 행위는 서로 반대되며, 전혀 공통점이 없으며 기쁨과 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선견된 선, 혹은 그들의 행한 공로는 엄격히 배제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그것은 절대적인 무상(無償)의 선택이다.

(3)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6-29). 이 말씀에서 세 번이나 “택하사”(선택)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폐한다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 선택하지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더욱 드러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 택함을 받은 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멸시받는 것들”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증명하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1:3-5,11). 이 말씀에서 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하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여 온 인류를 죄와 파멸에 던져 넣은 이후가 아니라, 아담이 빛을 보기 전,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②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관련하여 세우신 그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데 있다. 둘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하시는 것이며 셋째는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③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5)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살후2:13).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이 셋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얻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구원의 선택은 적절한 수단의 사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라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는 뜨거운 찬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6)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1:9).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다. 이 은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게 주어진 은혜이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에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

(7)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벧전1:2).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성령의 역사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순종보다 앞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사실은 인간의 입장을 전적으로 제거하고, 권능자의 주권적 기쁨을 따르게 한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란 말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豫知)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정(豫定)을 포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사도행전 2:23에서 명백하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작정)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B. 구원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 성부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어 주시는 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과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성부의 목적과 성자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만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히 9:26) 죽으신 것이다. 이 죄는 선택받은 자의 죄, 즉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죄”(요1:29)이다.

이 제한 속죄(制限贖罪)의 계획은 일정한 수의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과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게 한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히9:7)하셨고, 성육신 후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39)고 하셨다.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자들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7,39). 그리고 요한복음 17:1,2,6,9,24 등에서도 제한 속죄를 가르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게 하셨다.

속죄의 성질은 그것이 죄인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두 주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향한 것은,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만족을 드리는 사역이다. 한편 인간에게 향한 것, 이것은 대속(代贖)이며,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 취하시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량(贖良,

ransom) 혹은 대속물로 주셨으며, 이 사실이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셨다는 것은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 속량이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만일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제공되었다면, 이 때 모든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은 말소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지셨다고 하면, 이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도 정죄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빚을 다 갚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겠고”(요8:21) 그들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요9:41)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25:41)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확증해 준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현재 간구(중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가? 온 인류를 위해서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가? 온 인류를 위해서인가 자기 백성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구세주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시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9:24)계시다. 즉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히3:1)자들을 위하여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어서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중재)하심이니라”(히7:25). 이것은 구약의 형식과 엄격히 일치하고 있다. 아론은 제사 동물을 죽이

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또는 그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아론의 제사장 옷 흉부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의 말씀과 일치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17:9).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만한 성경은 로마서 8장이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하고 묻고는 즉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답한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요, 동일한 주제라는 사실이다. 모형과 원형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속죄와 간구는 공존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이때 그는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중재 간구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의 수는 속죄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제사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이다. 죄인은 본래 날 때부터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 반목(적의)을 정복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6:44). 하나님의 권능은 죄인의 교유한 적의(敵意)를 정복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산물이며, 그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적의”를 정복할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권능

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110:3).

C. 구원과 성령 하나님

성령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위들의 의지 및 계획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선택에 있어서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성자 하나님의 죽음에 있어서의 제한된 계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제한된 범위,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일치한다.

삼위 하나님의 각자는 인간의 구원에 관계가 있다. 성부는 선택에, 성자는 구속에, 그리고 성령은 중생과 관계가 있다. 성부는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성부는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고, 성자께서 하시는 일은 외적인 것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하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은 신생(新生)의 사역이며, 특히 성령께서는 이 사역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부는 우리의 신생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며, 성령은 그것을 효과 있게 하신다. 즉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요3:6).

신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 일에 인간의 몫은 전혀 없다. 이는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출생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효과 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적 출생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신생은 영적 부활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5:24)를 의미한다. 분명히 부활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다. 죽은 시체는 그 자체를 소생시킬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6:63).

성령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주권적이며,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즉 성령은 택하심을 입은 그들만을 위로하시고, 인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차 있을 것을 보여주신다. 성령의 사역은 성부의 영원하신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단 한 명의 죄인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구세주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의 고유한 저항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아들이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VII.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다른 기독교 사상 체계들 중에서 칼빈주의를 독특한 것으로 만든다. 칼빈주의와 항상 비교되고 있는 다른 종교 체계들은 인간의 구원을 일종의 궁극적인 문제로 보고, 주관적이고 인간론적인 입장, 즉 구원론적 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보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통치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구원론적 견해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견해를 갖고 있다. 개인의 구원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큰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주의는 은혜는 물론 자연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칼빈주의자는 특별 은총의 영역 못지 않게 과학, 예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모

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원리는 어느 다른 종교 체계가 능가할 수 없는 활동을 해 왔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특별한 세계관을 산출했다. (H. Bavinck, op. cit. p. 5) 칼빈주의자는 가장 깊은 영혼 내면에까지 하나님 사상으로 몰들어 있으며,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삶 전체를 이 기본 원리의 관점에서 확대했다.

이 주권 원리의 구절들 중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성경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모든 개혁자들은 성경 교리를 매우 강조하였다. 성경은 단지 인간에게 구원받는 방법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루터가 성경을 구원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간주한 반면, 칼빈주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는 단순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축진할 사람들의 집단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책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칼빈주의자는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인간 구원의 계획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절대적이며 실제적인 규범이 된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는 언제든 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사색을 통해서 하지 않고 성경에서 찾는다. 칼빈은 우리의 신관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변적인 신학의 위험성을 거듭해서 경고했다. 그는 쾰빙글리와 그의 사색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에 근거하였으며, 성경의 교훈을 넘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칼빈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

숨 외에는 아무것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였다. 칼빈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도 차라리 신비를 그 신비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의 신학을 지배했던 것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A.M.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pp.41-44)

2. 하나님의 주권 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는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찾는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으며, 세상에 구세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객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구원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3-5)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며, 기업을 얻게 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칼빈주의로 하여금 전포괄적인 사상 체계가 되게 하였다. 이 체계에는 신학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과학, 예술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칼빈주의가 우세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주권 원리는 정치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순종해야 하는 최고의 통치자로 생각되었다. 칼빈주의는 공화 정치 형태를 선호하나, 어떤 형태의 정부도 오늘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부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체제가 무엇

이든지 간에, 그것이 군주제이든, 민주주의든,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이든지 간에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정부와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기본 원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최고의 동기를 제공했다. 국민들은 하나님을 위해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정부를 매우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하나님의 이 주권 원리는 독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폭군이 될 때, 국민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에 비추어, 복종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그 폭군을 해임시키는 것이 국민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② 하나님의 주권 원리는 사회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칼빈주의자는 사회 생활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종교와 사회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 칼빈주의자는 사회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칼빈주의자의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를 피해 수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사회 생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배력을 사회에 증진시키게 하는 데 있다. 즉 부모에 대한 효도, 가정의 화목, 자기 일에 대한 충실, 우애, 충성, 겸손, 정직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미덕들을 강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종교적인 인정을 받게 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을 가능한 한 많이 개발할 소명을 갖게 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명상만 하는 신비적이며 괴동적인 형태의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와 의무와 소명을 크게 강조하면서 고도로 발달된 인간들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회 여러 영역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경제 생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칼빈주의는 산업과 상업의 영역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사업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그의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다. 종교적으로 그는 검소, 절약, 정직, 성실과 같은 사업적 미덕들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들은 칼빈주의의 탁월한 미덕들이다. 이러한 미덕들은 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커다란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칼빈주의자와 자본주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③ 하나님의 주권 원리의 영향은 교육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학과 예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이것을 선물로 알고 사용하며 발전시키기에 힘쓴다.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교육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갖고, 고등 교육 기관은 물론 초등 학교를 칼빈주의 교회들과 나란히 세웠으며, 또한 그들이 대부분 현대의 일반 교육 운동의 전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과학 분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칼빈주의 사상 체계의 존립을 위해 대중을 교육시킬 필요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학문을 매우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사의 문제였다.

로마 교회는 대중들을 교육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나 교리에 대한 교회의 결정을 다만 찬동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앙의 교리를 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배시에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는 설교가 아니라 성례이기 때문에, 설교도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 루터파도 대중 교육에 칼빈주의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들 진영에서 평신도는 교회 정치의 직책에서 배제되었으며, 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로마 교회와는 정반대이며, 루터파와도 다르다. 칼빈주의는 교회 정치를 평신도인 장로들의 손에 맡겼으며, 교회 정

치와 중요한 교리 문제들에 대한 결정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필요했다. 더욱이 평신도 자신은 성직자의 중재 없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평신도는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설교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이 믿는 신경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칼빈주의자가 철저한 교육의 신봉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VIII.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며, 이 주권 원리와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그리고 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함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타오르는 살아 있는 원리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 원리는 사변적인 사상이 아니라, 칼빈주의의 존재의 모든 신경과 근육을 지배하는 확신이며 활동의 동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의식이 강하고 깊은 곳에 칼빈주의는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며, 영원의 문제들을 실감하며, 방종이 억제되고, 기독교적 양심에 따르며 복종하는 곳에 역시 칼빈주의가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